

특 집 | 사서들이 꿈꾸는 도서관

통제와 억압의 사슬을 풀어버린 밀레니엄 도서관상을 꿈꾼다

: 제1호 양심 도서관의 탄생을 고대하면서



강 영 구*

도서관의 역사를 보면 참 흥미롭다.

책의 역사가 권력과 부의 상징, 독점의 역사였듯, 도서관 역시 비슷한 역사의 굴곡을 넘어 오늘날 시민들의 품에까지 와 있다.

그러나, 아직도 도서관은 권력자의 권위와 위엄과 재산의 상징이었던 모습, 중세 교회(수도원) 도서관의 고고한 자태를 그대로 간직하기 위해 애쓰고 있으며, 도서관이 귀하던 시절 책 한 권, 한 권을 소중히 여기던 시절에 만들었던 각종 제도들조차 면면히 이어져 오고 있음을 발견할 때마다 전율을 느끼곤 한다.

어느날 꿈에 도서관을 휘감고 있는 육중한 쇠사슬을 본 이후 오늘날까지 도서관은 쇠사슬로 묶여 있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게 되었다.

연체료와 분실도서 변상의 기원은 중세 수도원 도서관에서부터 시작되었다. 그 이전에는 대출이라는 개념이 없었고, 워낙 책이 비싸던 물건이어서 쇠사슬로 묶는 경우도 있었다.

중세에 들어 수도원 도서관에도 기증이나 적극적인 수서활동으로 장서가 늘

* 나사렛대학교도서관 열람계장, iljys@hanmail.net

어나게 되었고, 이런 장서들을 외부로 대출을 하게 되었는데, 책의 분실에 대한 제재가 처음으로 시작되었다.

인쇄술의 발명, 시민혁명, 산업혁명을 거치면서 도서관은 점차 민중들의 품으로 오게 되었고, 정보를 접할 수 없는 민중들에게 유일한 정보의 창구역할을 담당하게 된 이후 수세기 동안 가장 민중에게서 가까운 곳에 있으면서 민중의 정보욕구를 충족시켜왔다.

21세기를 맞으면서 우리 주변의 환경들은 정말로 많이 변하였고, 변한 것보다 더욱 많은 변화들이 있을 것으로 충분히 예상된다.

개인의 자유와 행복이 그 어느 시대보다 더욱 중시되고, 더욱 조화로운 사회로 발전해 갈 것이다.

이러한 변화의 틈바구니 속에서 우리 도서관은 아직도 절대로 변하지 않으려는 굳센 의지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마케팅 개념이 도입되고, 서비스에 대한 마인드들이 새로워지지만, 도서관의 이미지는 하나도 변하지 않았다. 언제나 도서관은 육중하고, 무겁고, 조용하고, 권위적이기만 하다. 그리고, 아직도 걸어서는 가기 힘든 한적한 곳에 고고하게 존재하고 있는 곳이 많다.

이제 도서관도 재미있어야 한다. 도서관도 활발해야 하고, 더욱 역동적인 기관으로 변해야 한다. 그리고 이용자와 친밀한 기관이어야 한다. 이용자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야 한다.

이와 함께 내가 꿈꾸는 도서관은 수백년 동안 이용자들의 발목을 묶고 있던 족쇄를 풀어 주었으면 한다. 도서관에 들어올 때마다 눈치를 보는 이용자들의 마음을 이해해 줄 수 있어야 한다. 규정위반으로 제재를 받을까 노심초사하는 마음을 풀어주어야 한다. 도서 반납일에 대한 스트레스에서 해방시켜 주어야 한다. 나아가 도서관의 모든 규제와 제재 조치, 규정들을 과감히 철폐하기를 주장해 본다.

여러 가지 우려되는 면들이 많음을 알고 있다. 그러나, 안 된다고 생각하면 그 무엇도 할 수 없다. 악용하면 어떡하냐고 항변할 사람들도 많을 것이다.

늘 도서관에 대해 환상을 꾸고, 꿈의 도서관을 가꾸고 싶어하는 내 눈에는 이런 도서관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어쩌면 초기에는 문제가 많이 발생될 것이다.



그러나, 나의 소망은 우리 도서관을 이용하는 소중한 이용자들이 더 이상 예비 범죄자로 취급받지 않기를 소망해 본다. 지역의 도서관은 그 지역 주민이 언제든지 들어와 자연스럽게 책을 보고 또 빌려가고, 자유롭게 반납하면서 자연스럽게 그들의 삶속에 뿌리내려지길 소망해 본다.

책은 우리 도서관의 소중한 재산이다. 그러나, 책은 언제든지 그 수명이 다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의 전제로 하였으면 좋겠다. 우리가 서비스하는 소중한 이용자들이 너무나 열심히 이용하다 책이 파손될 수도 있음을 인정할 수 있으면 좋겠다.

어느 나라에는 책 반납을 하지 않은 이용자들에게 해결사를 보낸다고 하는 소식도 들었다. 또 어느 나라에는 하루 연체료가 1000원이 넘는다는 소식도 들었다.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의 도서관에는 이런 암울한 소식이 없어지기를 소망한다. 이용자들이 언제, 어디서나 소중히 여김을 받을 수 있는 도서관을 소망한다.

제대로 된 도서관 이용문화, 성숙된 도서관 이용 의식이 자유로운 도서관 속에서 생겨나길 소망한다.

제재를 통한 이용자들의 행동 수정이 아니라, 이용자들을 격려하고 인정해 줌으로 그들의 도서관 이용문화가 변화되어 가기를 소망한다.

절대로 이런 도서관은 만들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암울한 생각이 들기도 한다. 그러나, 반드시 이런 날이 올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올해가 가기전에 제 1호 양심 도서관의 출현 소식이 신문지면을 통해 들려오기를 기대해 본다. (2006)

* 2003년 제주시에서 어울림마당(휴게 공간)에 양심도서관을 설치하였으나, 도서분실, 시설물 파손 등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 2005년 중반 폐지된 안타까운 기록이 있습니다(한라일보 2003.3.18, 2003.8.19, 2004.10.5. 기사 참조).